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력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는 평양화력발전연합 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전력중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고있는 평양화력발전연합 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이 16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조연준동지서와 연합기업소 로동계급,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평양화력발전연합 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이 16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올해내 무형경쟁을 높이 받들고 새로운 평양정신, 평양속도창조의 불타람을 세계에 일으키며 축제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었다.

축하문은 평양화력발전연합 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이 국가경제건설 5개년전략수행의 첫해인 올해에 당앞에 걸린 전력중산목표와 무형경쟁을 기어이 수행할 비상한 각오로 심장의 피를 끓이며 전력생산과

생산문화, 생활문화혁명을 비롯한 모든 사업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최선에 나선 돌격병사의 작오와 투지로 20여일이 걸려야 하는 정전보수를 1주일동안에 끝내고 2호 라비법정기와 3호보이리대보수를 삼파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지난 시기에는 업무도 내지 못했던 5 000㎡의 방대한 라비기 건설시공률과 함께 4일동안에 끝내며 장야철에도 전력생산을 지장없이 보장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였다.

기업소의 기술자, 기능공들은 지역자장의 정신과 과학기술의 힘으로 30t, 300t프레스를 살려내고 개량방식으로 되어있던 보일러의 200kW미부중공기전동기를 밀폐형으로 개조한것을 비롯하여 12건의 기술혁신안들을 장안도입함으로써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기업소의 일군들과 후방부근로자들은 로동계급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려는 당의 의도를 받들고 하차직장의 후생시설을 번듯하게 완공하였으며 일생산1직장교

대유계실전실을 힘있게 꾸미고 무해주었다.

기업소의 미려운 청년전투들은 매일같이 벌어지는 생산현장의 어렵고 힘든 초소들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돌격전을 벌여왔으며 기술혁신과제수행의 중요한 몫을 맡아 돌파구를 열어제끼고서 전력생산목표의 청년동맹 제9차대회를 뜻있게 맞이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모임에서는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 지대인 조영영, 전기기술자 조영환위원장 한상호, 열심보수사수장 지대인 신호근이 도론했다.

도론했자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자신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

과업을 철저히 완결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

그들은 모든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산업의 성장전 전력문제를 푸는것은 당 제7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건설 5개년전략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심고리라는 것을 명석하고 전력중산의 동음을 계속 세계에 울려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지역자장의 권력으로 기업소의 청년전투를 힘있게 추진하는데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서평양기관차대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에서 서평양기관차대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첫시작부터 희생적인 투쟁으로 전신수송을 보장한 전례도 수송인사들처럼 철도수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정의 활약권을 힘있게 발휘하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전력중산목표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봉부문의 200일전투성과가 수송에 의하여 좌우되는 무거운 책임을 지각한 운전자들을 비롯한 승무원의 지위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중송투쟁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평양철도국 서평양 기관차대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래로 중송투쟁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 평양철도국 서평양기관차대의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16일에 진행되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성동지와 김두일 철도성 정치국장, 서평양기관차대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서평양기관차대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에서 서평양기관차대 로동계급이 200일전투의 첫시작부터 희생적인 투쟁으로 전신수송을 보장한 전례도 수송인사들처럼 철도수송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정의 활약권을 힘있게 발휘하며 대하여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전력중산목표를 비롯한 인민경제 선봉부문의 200일전투성과가 수송에 의하여 좌우되는 무거운 책임을 지각한 운전자들을 비롯한 승무원의 지위성

높이 세운 수송계획을 수행하면서 자진하여 소운전, 절인차과 운송을 벌여 수송성과를 끊임없이 확대하였으며 30여명의 기관사들이 8월 20일경 첫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는 로데적위훈을 창조하였다.

기관차수리전투에 전입한 수리중대의 로동계급은 맨손으로 피대를 돌리며 원수적멸의 무기와 포탄을 생산하던 군지리로동계급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기관차의 압축기소차와 비롯한 100여개의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매일 기관차수리계획과 소수리계획을 넘쳐 수행함으로써 긴장한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배두정충훈이 창조한 배두산 영웅형전진신을 기적창조의 기치로 추켜든 서평양기관차대의 청년들은 기관차수리물건을 못과 가장 어려운 파헤쳐를 맡아 돌파구를 열어나갔으며 종전에는 40여일이 걸리던 기관차중수리를 7일동안에 끝내며 청년강국의 주인, 창조자의 기인으로 지대한 청년전투의 불굴의 기상을 높이 떨쳤다.

과학기술을 지역자장의 보검으로 틀어쥔 기술자, 기능공들은 생산자대중과 힘과 지력을

함께 바리울락용 용감공과 주철 용접공을 비롯한 각종 용접공에게서 전진을 이룩하고 기관차 속메이링 내내제성지수와 반응수철제성지수를 만들어 기관차 수리의 질과 속도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불길기술적도를 마련하였다.

서평양기관차대를 비롯한 철도부문 로동계급의 비상한 애국열의와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철도수송에 지장을 주던 애로와 난관이 극복되고 수송행행과 중송의 기적소리가 높이 울리게 됨으로써 당 제7차대회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쁨과 용기를 안겨주게 되었으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에서 전진적도파가 열리게 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과 지역자장의 권력으로 나라의 자들의 약한 경제상태를 과감히 극복하며 총정의 200일전투의 앞장에서 만리마를 탄 기세로 수송성과를 확대해나가고있는 서평양기관차대 로동계급과 일군들의 뛰어난 위훈을 높이 평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대장 박도철,

기관사 김학림, 조급성년동맹비서 박남일이 도론했다.

도론했자는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로동계급의 기상과 본래로 수철제성지수를 만들어 기관차 수리의 질과 속도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불길기술적도를 마련하여 장조하였다.

당면하여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에도 무른 당의 호소심정에 간직하고 부무전선에 설비와 자재를 비롯한 물품들을 최우선적으로 수송하며 8.18 무사고정시건인초파운동의 불길소리가 수송조직을 과파화, 합리화하고 규율을 강화하여 철도수송의 신속성과 정확성, 원활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한 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도론했자는 모든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철도운수부문의 전형단위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과 가슴깊이 새겨안고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처럼 철도수송의 맨 앞장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창조함으로써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만리마의 수의 영광을 더 높이 떨쳐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고있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자강력제일주의기치높이 총정의 200일전투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고있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을 전달하는 모임이 16일에 진행되었다.

전송은 함경북도당위원장 위원장, 관계부근 일군들,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일군들, 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보내는 축하문전달모임이 16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에서 배두정충훈과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발양하며 당 제7차대회가 열인 올해를 혁명의 최전선기로 맞이하기 위한 축제의 200일전투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혁명적기상을 힘있게 떨치고있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로동계급과 일군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전투적인사를 보내었다.

축하문은 당의 전투적호소를 피뎀는 심정으로 받아들인 무산광산연합기업소의 로동자, 기술자들과 일군들이 70일전투의 활약전에서 대혁신을 일으킨

기세로 총정의 200일전투에 총력기, 고메전하에 걸지의 의욕생산기치를 지어낸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만아들답게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받들고 공훈을 세겨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합기업소로동계급은 혁명의 선산 배두산을 우리로써 역세계적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받들고 공적정신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여 일일, 수월, 월별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5배이상의 철정량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일에 의존하던 화전식작정기부속품과 대형자동차부속품을 비롯하여 실비부속품을 개발하고 로엔제열장에 종합적인 원자감시시제체를 힘있게 건설하고 있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일에 의존하던 화전식작정기부속품과 대형자동차부속품을 비롯하여 실비부속품을 개발하고 로엔제열장에 종합적인 원자감시시제체를 힘있게 건설하고 있다.

모임에서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대인 조영영, 전기기술자 조영환위원장 한상호, 열심보수사수장 지대인 신호근이 도론했다.

도론했자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자신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

기세로 총정의 200일전투에 총력기, 고메전하에 걸지의 의욕생산기치를 지어낸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만아들답게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받들고 공훈을 세겨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합기업소로동계급은 혁명의 선산 배두산을 우리로써 역세계적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받들고 공적정신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여 일일, 수월, 월별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5배이상의 철정량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일에 의존하던 화전식작정기부속품과 대형자동차부속품을 비롯하여 실비부속품을 개발하고 로엔제열장에 종합적인 원자감시시제체를 힘있게 건설하고 있다.

모임에서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대인 조영영, 전기기술자 조영환위원장 한상호, 열심보수사수장 지대인 신호근이 도론했다.

도론했자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자신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

기세로 총정의 200일전투에 총력기, 고메전하에 걸지의 의욕생산기치를 지어낸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의 만아들답게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받들고 공훈을 세겨가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연합기업소로동계급은 혁명의 선산 배두산을 우리로써 역세계적 자강력제일주의를 높이 받들고 공적정신으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중산투쟁을 힘있게 벌여 일일, 수월, 월별전투목표를 넘쳐 수행하고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5배이상의 철정량을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자강력제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수일에 의존하던 화전식작정기부속품과 대형자동차부속품을 비롯하여 실비부속품을 개발하고 로엔제열장에 종합적인 원자감시시제체를 힘있게 건설하고 있다.

모임에서는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지대인 조영영, 전기기술자 조영환위원장 한상호, 열심보수사수장 지대인 신호근이 도론했다.

도론했자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자신들이 지닌 무거운 책임감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당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 제시된 전투적

조선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정당대단원과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이 2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담성과 위대한 수평남북관계에 힘입어 조선인민들이 일으킨 대혁신의 기적소리가 나이지리아의 전진보대변, 민주주의의 연합, 대진보적인민당, 진보적인민주대변, 인민진보당대단원과 AIT방공국 국장, 전 내각정부수상인 내각공산당(통일전 앞스-에니주의) 중앙위원회 총서, 내각공산당(마오리더) 중앙위원회 지도부 성원인 당내각과 부위원장, 내각지정회의 위원장, 내각공산당 정치지정회의 서기장, 파커스민당 중앙서기국 국장인원, 파커스민당 하이라 파커스와주 국회의원의 원고에 대한 의문선 전을 하고있으나 현실은 조선이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있다는 것을 분명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나이지리아인민들에게 우리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주기 위한 활동은 적극 벌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를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파커스민당 하이라 파커스와주 국회의원의 원고에 대한 의문선 전을 하고있으나 현실은 조선이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있다는 것을 분명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년에 즈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강조하고

그이의 현명한 명도임에 세계를 경탄시키는 비약을 창조하며 미국과 당당히 맞서는 조선이아랍 조나와강이라고 견찬하였다.

나이지리아 인민전보당 행정비서는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을 통하여 조선인민들이 일으킨 대혁신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고있는것을 다시금 힘있게 되었다. 위대한 수평남북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속해나가는 길은 온갖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선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더욱 위용떨칠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 나라의 AIT방공국 국장은 조선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짧은 기간에 최상의 발전속을 이룩한 나라라고 하면서 서방인론자들이 조선에 대한 의문선 전을 하고있으나 현실은 조선이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있다는 것을 분명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년에 즈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강조하고

가 자기의 존엄과 자주권을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가를 세계에 실현으로 보여주고있다고 말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년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국장, 정부 수, 단체, 기관과 각계 인사들 그리고 국제기구가 6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외부에 축하바구니를 보내어왔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담성과 위대한 수평남북관계에 힘입어 조선인민들이 일으킨 대혁신의 기적소리가 나이지리아의 전진보대변, 민주주의의 연합, 대진보적인민당, 진보적인민주대변, 인민진보당대단원과 AIT방공국 국장, 전 내각정부수상인 내각공산당(통일전 앞스-에니주의) 중앙위원회 총서, 내각공산당(마오리더) 중앙위원회 지도부 성원인 당내각과 부위원장, 내각지정회의 위원장, 내각공산당 정치지정회의 서기장, 파커스민당 중앙서기국 국장인원, 파커스민당 하이라 파커스와주 국회의원의 원고에 대한 의문선 전을 하고있으나 현실은 조선이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있다는 것을 분명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년에 즈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강조하고

68년에 즈음하여 나이지리아 정당대단원과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이 2일부터 9일까지의 기간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을 축하방문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대담성과 위대한 수평남북관계에 힘입어 조선인민들이 일으킨 대혁신의 기적소리가 나이지리아의 전진보대변, 민주주의의 연합, 대진보적인민당, 진보적인민주대변, 인민진보당대단원과 AIT방공국 국장, 전 내각정부수상인 내각공산당(통일전 앞스-에니주의) 중앙위원회 총서, 내각공산당(마오리더) 중앙위원회 지도부 성원인 당내각과 부위원장, 내각지정회의 위원장, 내각공산당 정치지정회의 서기장, 파커스민당 중앙서기국 국장인원, 파커스민당 하이라 파커스와주 국회의원의 원고에 대한 의문선 전을 하고있으나 현실은 조선이 모든 분야에서 강국의 지위를 확고히 차지하고있다는 것을 분명적으로 보여주고있다고 강조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8년에 즈음하여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자 강조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메히꼬합중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었다

메히꼬 합중국 대통령 엔리께 나 니에도각하

나는 메히꼬국립 206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정과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 남 평 양

주제105(2016)년 9월 16일

메히꼬 합중국 대통령 엔리께 나 니에도각하

나는 메히꼬국립 206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정과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 남 평 양

주제105(2016)년 9월 16일

메히꼬 합중국 대통령 엔리께 나 니에도각하

나는 메히꼬국립 206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정과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 남 평 양

주제105(2016)년 9월 16일

메히꼬 합중국 대통령 엔리께 나 니에도각하

나는 메히꼬국립 206년에 즈음하여 당신과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정과 복리를 위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두 나라 인민의 이익에 맞게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 남 평 양

주제105(2016)년 9월 16일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는 조선로동당의 당풍

지금 우리 당은 북부피해복구전투를 200일전투의 주타격방향, 최전방으로 정하고 여기에 전방, 전진, 전진의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이것은 인민을 제일이 중히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우리 당의 당풍이 어떤것인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은 조선로동당의 존재방식이며 혁명적당풍이다. 정예하는 정예는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민대중의 요구와 이익을 첫자리 에 놓고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며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

당풍은 당을 건설하고 혁명과 건설을 명도하는 역사적행정에서 형성되고 공고화되는 당적기풍이다. 일시적인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발휘되는 당사정기풍, 당정합기풍이 바로 당풍이다.

혁명하는 당의 당풍은 인민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혁명은 인민대중을 위하여이며 인민대중의 단결된 힘에 의하여 진행된다.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며 인민에게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당만이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며 혁명을 태의 한길로 이끌수 있다.

그러면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당풍이 오늘의 피해복구전투에서 어떻게 표시되고있는가.

그것은 우선 인민이 당하는 아픔과 불행을 가사해주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내세우는데서 나타났고있다.

혁명과 건설을 이끄는 당의 명도는 모든것이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정권건설과 군건설, 경제건설과 문화건설도 다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한것이며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것이다. 그중에서도 인민의 아픔보다 더 큰 비상사태는 없으며 인민의 불

행을 가사해주는것보다 더 중대한 혁명 사업은 없다는것이 우리 당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이런에 함북도 북부지구 인민들이 뜻하지 않게 큰피해를 입은 비상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당은 큰피해복구투를 하나의 전선으로 간주하고 령명적의전선에서 참가하였던 전직자들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건설노력을 피해복구투에 총동원하였다. 각급 당조직들이 피해복구투라는 우리 당의 인민사수, 인민복무전투라는 투쟁한 힘장을 거두고 피해지역 인민들에게 식량과 가정용품 비롯한 갖가지 생활필수품들을 보내주기 위한 지원열풍을 세계에 일으키고있다.

피해지역 인민들의 아픔을 하루빨리 가사주기 위하여 전방, 전진, 전진의 총력을 집중하는것은 인민들에게 행복을 안겨주는것을 최대의 중대사로 여기는 우리 당만이 펼칠수 있는 인민사랑의 숭고한 화풍이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이 당풍으로 되어있기에 우리 당은 지난해 라비만 큰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조국방위를 위하여 인민군인들을 급파하여 인민대중에게 안전을 보장하는것을 명철로 보았으며 큰피해를 입은 인민들이 30여일만에 최한한 전 전제에 행복의 보금자리를 펴게 하는 지원부의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당풍은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천금도 아끼지 않는다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수지타산을 알 새우지 말아야 하며 인민이 바란다면 하늘의 별도 따고도 줄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것이 우리 당의 당풍이다.

우리 당은 지금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을 로동당시대의 선봉으로 더 훌륭하게 꾸릴 용대한 설계도를 펼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고있다.

우리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성, 중앙기관의 당조직들과 도, 시, 군당 위원회를 비롯한 각급 당조직들에서 함

부도 북부피해복구전투를 위한 긴급회의를 조직하고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 총집중하기 위한 작전을 펼치었다.

이런에 함북도 북부피해지역에서는 골라진 수많은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이 대거전출을 벌이고있으며 피해복구전투를 하고 있는 실비들과 자재들, 후방물자들이 령차와 자동차, 배로 긴급수송되고 있다.

엄혹한 대재난이 발생한 피해지역을 원상상태로 아니라 더 훌륭하고 더 최한하게 일떠세우는것은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지역에서의 현수공작전, 이것은 로동계급을 잃고 한지에 나앉아 고생하는 인민들의 아픔을 두근보다 깊이 헤아려주고 그들에게 더 큰 행복, 더 부활되는 생활을 안겨주기 위하여 천안금도 아끼지 않는 우리 당의 인민사랑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당풍은 인민을 위하여 건설적으로 투쟁하는에서 뚜렷이 표시되고있다.

인민의 운명을 지키는것은 결사의 투쟁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자주적인 나라의 인민들을 노예화하려고 할을 몰고 덤으로 강요한다. 엄혹한 자연재해도 인민들에게 재난과 불행은 들뜨운다. 결사의 각오로 인민들과 싸우고 자연을 개조하여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끝까지 지켜나갈수 있다.

우리 당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를 최단기간에 끝내기로 결심하고있다. 올해 추위가 닥쳐오기 전에 수만세대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을 새로 일떠세우고 파파, 침수된 활길과 도로를 비롯한 교통망과 전력공급계통, 공장, 기업소, 농경지를 복구한다는것은 보통의 각오로써는 해낼수 없는 일이며 결사의 의지가 있어야 수행할수 있는 기상과 방대한 힘이다. 피해복구전투에 참가한 전구원들이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결사전을 벌이고는 나라 공장, 기업소의 당면들

과 근로자들이 사생검단으로 중산물적투쟁을 벌여야 한다.

다른 나라들같은데면 면이 걸려도 이런 문헌내 대재난을 수습하는것은 못하며 재해지역 주민들에게 새 살림집을 지어주는 것은 고사하고 일정한 정도에서 피해정리를 하고 손을 떼는것이 배사구이다. 하지만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것이 당풍으로 되어있는 우리 당은 억만금을 쏟아붓고 나라의 재부를 총재로 기울여서라도 최한기간에 인민들의 행복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인민들의 의지로 피해복구투를 이끌고있다. 인민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서는 어떤 천지공과도, 어떤 대재앙도 막을것없는 기상으로 뚫고나가는 우리 당의 명도가 있기에 조국의 복원명도는 로동당대중소리, 수호의 만수소리가 더 높이 울려나올것이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당의 모습은 보통날보다 시원속에서 더 뚜렷이 부각되고 인민들의 심금을 울려 줄것이다. 우리 인민은 함북도 북부피해복구전투의 승리를 위한 우리 당의 결심과 실천에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우리 당의 당풍이 어떤것인가를 온몸으로 체감하고있다. 평범한 나날에 무상으로 받아인민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무교교육제와 무상치료제, 행복, 우리 인민을 위한 것들이다. 그 어떤 무기로 삶은 호박처럼 만들어놓을수 있는 우리의 자위적책임이 어떤 건조한 투쟁과 시련속에서 마련되었는가를 다시금 심장에 새기고있다.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는 조선로동당의 품속에서 사는것은 우리 인민의 크나 큰 긍지이고 행복이다. 우리 인민군인은 인민을 제일로 사랑하고 인민을 제일로 위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를 높이 받들고 북부피해복구전투에서 대승리를 안아올것이며 주체의 당기발아래 끝없는 우리 입심전투의 위력을 세계만방에 높이 떨칠것이다.

정 선 철



주제적국방공업의 창설과 강화발전에 앞장서고있는 백두산협대위인들의 불멸의 혁명적기를 가슴깊이 새겨간다. -평원혁명사적지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조국의 북변땅에 그 어떤 천지풍파에도 끄떡없는 사회주의보금자리를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은 군대와 인민을 믿고 군대와 인민은 우리 당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그 고귀한 믿음과 열정이 있어 우리는 참혹한 재난속에서도 무서움없이 있습니다.》

함북도 북부지역들중에서 큰 피해를 입은 무산군의

피해 복구 전투성과 계속 확대

무산군당위원회와 무산군인민위원회 일꾼들은 힘있는 조직정치사업을 일떠세우고 전투조직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오늘의 피해는 일시적이거나 만드신 더 큰 행복, 누구나 부러워하는 새 생활이 머지않아 펼쳐진다는 신념을 안고 피해 복구전투에 헌신함으로써

피해 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지휘를 하고있는 3대안 공격전을 벌려나가고있다.

피해 복구전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인민들의 생활을 하루 빨리 안정시키는데서 철길과 도로 복구가 가지는 의의를 잘 알고 있는 군의 일꾼들은 이 사업에 힘을 쏟고있다.

철과 한수일로 계획되었던 무산군 남산로동자구에 위치하고 있는 무산-철산중철길로반복구가 이틀만에 끝나게 되었고 읍에서 철길리범함으로 뻗어나

간 도로복구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산사태로 철길과 로반이 행해져도 없이 파괴되고 철길전우대의 애자놀이까지 쌓인 수천m의 흙무지와 감람을 처리해야 하는 무산-철산중철길로반복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의 피해 복구전투는 적대세력들의 사생결단의

지대한 전쟁이라는것을 깊이 자각한 무산군의 인민들은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여 무산-철산중철길로반복공사를 계획한 날자보다 훨씬 앞당겨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군에서는 변진소를 원상복구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다그치고 있다. 군의 일꾼들과 인민들은 밤낮 전투를 벌여 관물로 변진소에

필요한 전기를 보충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들인 무산군의 인민들은 더욱 분발하여 수천톤의 복구용 자재를 신속히 운반하여 복구사업에 힘쓰고있다.

하나의 지향안고

대원들과 전투원들에 대한 지원력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주초로동자구 8인민반의 황순진정교장은 무산방산연합

위원회와 전투원들에 대한 지원력이 더욱 높아지고있다. 주초로동자구 8인민반의 황순진정교장은 무산방산연합

더욱 고조되는 지원열풍

조국의 북변땅 인민들이 뜻밖에 임혹한 재난을 당한 소식이 전해진 때로부터 지원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무력기관과 성, 중앙기관, 각도의 공장, 기업소는 물론 평범한 가정들에서까지 지원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300여의 식량, 수산물에 60여만원이 지원되는 피복류와 50여명에 26만 3천여원에 달하는 생활필수품, 20종에 7천여원의 집기류와 수서...

기업소에서 일하고있는 아들과 함께 많은 지원물자를 가지고 철도복구에 참가한 동력차원들을 찾아가 그들의 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였다.

무산군 읍 68인민반에 살고있는 특유영예군인 황진국동무와 남산로동자구 74인민반에 살고있는 영예군인 리길복동무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호소문에 집고 피복복구전투에 참가하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하면서 생의력 마련할 지원물자를 피해 복구전투장에 보내주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한나하나의 지원물자마다에는

많은 비록 떨어져있어도 우리 당을 따르는 길에 혈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뜨거운 마음이 깃들여있다.

그 지원물자를 받으며 무산군 인민들은 떨쳐나선 한시도 살수 없는 내 조국의 귀중함을 매우

감사하고있다.

남로 더욱 고조되는 북부지역 지원열풍에 대한 전국구적인 지원열풍은 그 무엇보다도 제

드림수도 허물어버릴수 없는

일심단결의 대화원을 이룬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불멸성을

만전하여 과시하고있다.

글 및 사진 현지도반



철사관철의 정신으로 피해 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는 인민군인들

동서해에서의 립체적인 해상수송작전으로

북부지역 복구전투에서

선박들의 기적적승리를 생취함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들인 후 나라가 불타고 이치런 날이오르는 속에 특별한

부분의 선박들이 조선시해와 조선

동해를 헤쳐가며 북부지역으로

급파되고있다.

조선시해에서 조선동해로, 조선

동해에서 함안도까지 피해지역

으로 이어지는 해상수송작전은

연일 계속되어 나날이 새바람을

몰고서 기술여사라도 이제

당장 풀이달릴 엄혹한 강추위일

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

지 않게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불같은 기운이 담긴 결의가

다. 인민부무원의 열도를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에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을 믿고서 가 아니라

일심단결의 힘을 믿고서 가

야말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바탕을 둔 전진함

이다.》

200일전투의 주라격향

북부지역 복구전투에서

선박들의 기적적승리를 생취함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들인 후 나라가 불타고 이치런 날이오르는 속에 특별한

부분의 선박들이 조선시해와 조선

동해를 헤쳐가며 북부지역으로

급파되고있다.

조선시해에서 조선동해로, 조선

동해에서 함안도까지 피해지역

으로 이어지는 해상수송작전은

연일 계속되어 나날이 새바람을

몰고서 기술여사라도 이제

당장 풀이달릴 엄혹한 강추위일

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

지 않게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불같은 기운이 담긴 결의가

다. 인민부무원의 열도를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에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을 믿고서 가 아니라

일심단결의 힘을 믿고서 가

야말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바탕을 둔 전진함

이다.》

200일전투의 주라격향

북부지역 복구전투에서

선박들의 기적적승리를 생취함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들인 후 나라가 불타고 이치런 날이오르는 속에 특별한

부분의 선박들이 조선시해와 조선

동해를 헤쳐가며 북부지역으로

급파되고있다.

조선시해에서 조선동해로, 조선

동해에서 함안도까지 피해지역

으로 이어지는 해상수송작전은

연일 계속되어 나날이 새바람을

몰고서 기술여사라도 이제

당장 풀이달릴 엄혹한 강추위일

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

지 않게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불같은 기운이 담긴 결의가

다. 인민부무원의 열도를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에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을 믿고서 가 아니라

일심단결의 힘을 믿고서 가

야말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바탕을 둔 전진함

이다.》

200일전투의 주라격향

북부지역 복구전투에서

선박들의 기적적승리를 생취함에 대한 당중앙위원회 호소문을 받아들인 후 나라가 불타고 이치런 날이오르는 속에 특별한

부분의 선박들이 조선시해와 조선

동해를 헤쳐가며 북부지역으로

급파되고있다.

조선시해에서 조선동해로, 조선

동해에서 함안도까지 피해지역

으로 이어지는 해상수송작전은

연일 계속되어 나날이 새바람을

몰고서 기술여사라도 이제

당장 풀이달릴 엄혹한 강추위일

에서 피해지역 인민들이 고생하

지 않게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불같은 기운이 담긴 결의가

다. 인민부무원의 열도를

보여주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혁명에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을 믿고서 가 아니라

일심단결의 힘을 믿고서 가

야말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바탕을 둔 전진함

이다.》

200일전투의 주라격향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 개막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이

개막되었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축전은

세계 여러 나라 영화인들사이

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영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축전개막식이 16일 청년중앙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축전기발이 드르워져있는

청년중앙회관에는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주, 《영화, 《친선》이라는 글발들과

대형축전선전화들이 나뉘어있

었다.

축전참가자들이 개막식장에

도착하자 녀성위주적인 경쾌한

플로어댄스로 우리 인민에 대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 개막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이

개막되었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축전은

세계 여러 나라 영화인들사이

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영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축전개막식이 16일 청년중앙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축전기발이 드르워져있는

청년중앙회관에는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주, 《영화, 《친선》이라는 글발들과

대형축전선전화들이 나뉘어있

었다.

축전참가자들이 개막식장에

도착하자 녀성위주적인 경쾌한

플로어댄스로 우리 인민에 대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 개막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이

개막되었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축전은

세계 여러 나라 영화인들사이

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영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축전개막식이 16일 청년중앙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축전기발이 드르워져있는

청년중앙회관에는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주, 《영화, 《친선》이라는 글발들과

대형축전선전화들이 나뉘어있

었다.

축전참가자들이 개막식장에

도착하자 녀성위주적인 경쾌한

플로어댄스로 우리 인민에 대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 개막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이

개막되었다.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정기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축전은

세계 여러 나라 영화인들사이

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켜

영화예술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축전개막식이 16일 청년중앙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축전기발이 드르워져있는

청년중앙회관에는 《제15차

평양국제영화 축전 참가자들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자주, 《영화, 《친선》이라는 글발들과

대형축전선전화들이 나뉘어있

었다.

축전참가자들이 개막식장에

도착하자 녀성위주적인 경쾌한

플로어댄스로 우리 인민에 대

락원대경배수리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락원대경배수리공장에 2중3대

혁명붉은기가 수여되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합있게 벌려 달고서 혁명공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

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

직하고 공장과 일터를 알뜰히

락원대경배수리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락원대경배수리공장에 2중3대

혁명붉은기가 수여되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합있게 벌려 달고서 혁명공업을

모범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민

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

직하고 공장과 일터를 알뜰히

락원대경배수리공장에 2중3대혁명붉은기 수여

락원대경배수리공장에 2중3대

혁명붉은기가 수여되었다.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높이 받들고

전쟁광신자들을 징벌하려는 것은 온 민족의 의지

남조선에서 극악한 대결 《정권》인 리 평택 《정권》이 몰려나고 박근태 《정 권》이 등장한 것은 그야말로 발바라기 끼어 뱀을 잡아 죽이는 격이었다. 박근 태의 독선적거부는 리평택의 독선적거 부를 정당화하는 토끼안경이다. 리 평택의 독선적거부는 리평택의 독선적거 부를 정당화하는 토끼안경이다. 리 평택의 독선적거부는 리평택의 독선적거 부를 정당화하는 토끼안경이다.

대결전쟁정책이다. 역도가 미국의 령위 협공전에 대처한 우리의 혁명적력량 그 무는 《위협》으로 걸고들여 《복역로 투》를 《대북정책》의 목표로 내세운것 은 동북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침략거 도의 뚜렷한 발로였다.

남조선에서 극악한 대결 《정권》인 리 평택 《정권》이 몰려나고 박근태 《정 권》이 등장한 것은 그야말로 발바라기 끼어 뱀을 잡아 죽이는 격이었다. 박근 태의 독선적거부는 리평택의 독선적거 부를 정당화하는 토끼안경이다.

전쟁광신자들을 징벌하려는 것은 온 민족의 의지이다. 개요되는 삼년 투어도 황모가 되지 못하는 법이다.

복서리치는 폭행의 관무장

남조선리평택내에서 《군기회칙》의 간판에 각 종 폭행사건들이 저지르고자 하고자, 광범 하고 같은 군기회칙위법시 모르면 물론이고 이어 저지러 사회정적들의 입을 열었다고 한다.

남조선리평택내에서 《군기회칙》의 간판에 각 종 폭행사건들이 저지르고자 하고자, 광범 하고 같은 군기회칙위법시 모르면 물론이고 이어 저지러 사회정적들의 입을 열었다고 한다.

남조선리평택내에서 《군기회칙》의 간판에 각 종 폭행사건들이 저지르고자 하고자, 광범 하고 같은 군기회칙위법시 모르면 물론이고 이어 저지러 사회정적들의 입을 열었다고 한다.

남조선리평택내에서 《군기회칙》의 간판에 각 종 폭행사건들이 저지르고자 하고자, 광범 하고 같은 군기회칙위법시 모르면 물론이고 이어 저지러 사회정적들의 입을 열었다고 한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분부가 강조

남조선신문 《민중시력》에 의하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분부가 8일 서울에서 남조선장기미군수와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결의하는 북측, 남측, 해외분부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남조선신문 《민중시력》에 의하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분부가 8일 서울에서 남조선장기미군수와 조선반도의 전쟁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할것을 결의하는 북측, 남측, 해외분부 공동결의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동족대결을 지부의 수단으로 여기고있는 괴뢰군부의 더러운 체질

남조선리평택내에서 《군기회칙》의 간판에 각 종 폭행사건들이 저지르고자 하고자, 광범 하고 같은 군기회칙위법시 모르면 물론이고 이어 저지러 사회정적들의 입을 열었다고 한다.

남조선리평택내에서 《군기회칙》의 간판에 각 종 폭행사건들이 저지르고자 하고자, 광범 하고 같은 군기회칙위법시 모르면 물론이고 이어 저지러 사회정적들의 입을 열었다고 한다.

재지동포학자에 대한 파쇼적폭거

재지동포학자에 대한 파쇼적폭거에 대해 보도하였다. 그리고 재판과정에는 유권과 일본과 동포를 학살하였다.

백두산건설부대와 더불어 영생하는 삶

백두산건설부대와 더불어 영생하는 삶에 대해 보도하였다. 영생하는 삶에 대해 보도하였다.

백두산건설부대의 손길아래 지난 16년간 618건설돌격대가 걸어온 길은 김피리였다.

백두산건설부대의 손길아래 지난 16년간 618건설돌격대가 걸어온 길은 김피리였다.

백두산건설부대의 손길아래 지난 16년간 618건설돌격대가 걸어온 길은 김피리였다.

백두산건설부대의 손길아래 지난 16년간 618건설돌격대가 걸어온 길은 김피리였다.

《제》에 나서고있는것은 매우 잘못되었거라고 단죄하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대북정책》이 아니라 평화정책을 수립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남조선인리테트신문 <민족일보> 글 게재

남조선인리테트신문 《민족일보》가 12일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장기미군수를 광범한 것들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다.

조진중양홍선

조진중양홍선에 대해 보도하였다. 조진중양홍선에 대해 보도하였다.

조진중양홍선

조진중양홍선에 대해 보도하였다. 조진중양홍선에 대해 보도하였다.

